

전북대학교 서거석 총장님

“글로벌 인재를 키우려는 의지 최고죠”

김우형 | 전북대학교 환경공학과 3학년

저는 '호남·충청 지역 최초의 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 04학번 김우형입니다. 우리 대학이 '호남·충청 지역 최초'라는 사실은 총장님으로부터 처음 들었습니다. 총장님은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처음 몇 번 들었을 땐 귀가 따가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저 역시 우리 대학을 남들에게 소개할 때는 이 말이 먼저 나옵니다. '최초'라는 말 참 자랑스러운 일이죠. 총장님께서서는 구성원들에게 대학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셨나 봅니다.

2004년 3월, 청운의 꿈을 안고 전북대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누구나 생각하는 대학 생활의 자유와 낭만을 가슴 속에 그리면서 말이죠. 그런데 당시 우리 전북대학교는 왠지 모르게 정적이고 차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새내기 눈치 비친 학생들의 모습은 수업 듣고 도서관에서 공부하거나 친구들과 여가를 즐기는 것이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도 무척 근엄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구실 문을 두드리려면 몇 번을 망설이다 큰 용기를 냈던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남들과 마찬가지로 1학년을 보내고 2학년 때 휴학하고, 그 해 말경 입대하여 2년간의 군복무를 마친 후 2008년 3월 복학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이 '확'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분위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역동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은 수업뿐만 아니라 진로나 취업 준비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들과 항상 대화하고 상담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겼습니다. 신입생들도 진지하게 진로를 설계하는 모습에 선배인 제가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학생홍보대사의 눈으로 본 총장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무엇보다 서거석 총장님의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 제시와 불도저 같은 추진력이 우리 대학의 변화를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총장님의 의지와 우리 대학의 변화를 이해하게 된 계기는 학생홍보대사를 하면서부터입니다. 지난해 말 치열한 경쟁을 뚫고 홍보대사로 선발된 저는 '대학 알리기'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하여 겨울방학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때 보였던 총장님의 모습은 어렸을 때부터 부유한 가정에서 엘리트 코스만 밟아왔을 것이라는 느낌이었습니다. 법대 교수와 학장을 거쳐 총장이 된 사실만 보아도 분명히 그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선입견이었습니다. 서거석 총장님은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갑자기 가정형편이 어려워져 고학으로 학비를 스스로 벌었다고 합니다. 이때 총장님은 어디서도 배울 수 없는 독립심과 강한 책임감을 배우셨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씀을 듣고 항상 부모님께 투정만 해온 저 자신이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총장님께서 법과대학에도 이런 업적은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일본 도쿄대학의 초청으로 교환교수로 가 있는 동안에도 온통 학교 생각뿐이었고, 97년에는 교수들의 추대로 학장직을 맡으면서 '법대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여 법대발전기금모금과 고시반 활성화를 이끄셨답니다. 그런 노력으로 현재 우리 대학 법대는 호남·충청권 대학에서 사법고시 합격자 배출 수에서 1~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학생을 위한 새로운 정책, 총장님 멋져요

총장님은 취임과 함께 대학 전반적인 분야에서 변화를 추구하셨습니다. 2020년까지 세계 100대 대학으로 도약하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구성원들에게 제시한 후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실현방안을 제시하였답니다.

그 중 첫 번째 성과는 대학통합이었습니다. 특히 총장님은 전국의 어느 대학도 이루지 못한 학과 간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캠퍼스별 특성화 기반을 마련하여 가장 성공적인 통합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총장님이 대학 구성원과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가진 설명회 자리가 50회 가까이 되었다니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통합을 신호탄으로 우리 대학의 내부적인 변화도 시작되었습니다. 교육과 연구의 내실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총장님은 기존의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교수와 학생, 직원 모두가 변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에 따라 대대적인 혁신이 진행되었고 대학의 경쟁력 강화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성과를 이루셨습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신 서거석 총장님은 첫 번째로 국립대 최초로 지도교수가 직접 학업은 물론 진로 설계와 취업 준비를 지도해주는 '평생지도교수제'를 시행하여 필수 학점회합으로써 학업과 취업에 고민이 많은 학생들에게 어느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진정한 멘토를 모시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개인 경력관리 프로그램에는 재학 중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개발토록 하는 '큰사람 프로젝트'를 도입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경쟁력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 대학의 각종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노동부로부터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되고 취업률도 크게 올라 지난해에는 거점 국립대 중 2위를 차지하였답니다.

우리 총장 멋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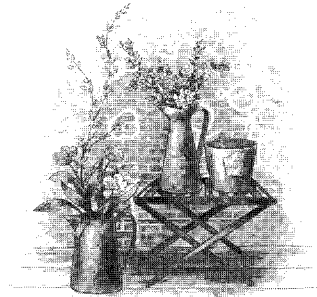
두 번째로 학생들에게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해외 자매결연 대학에 연간 400명에 이르는 학생들을 파견하는 '글로벌 리더 프로젝트'를 새롭게 추진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 중국 등 세계 유수의 대학들과 국제 복수학위제를 시행키로 하는 등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관심도 매우 높습니다.

또한, '총장과의 대화' 시간을 마련하여 학생들과도 적극 소통하는 총장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총장님은 학생들에게 의욕과 열정을 불어넣어주셨는데 그 모습이 부드러운 아버지 같기도,

엄한 훈장님 같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5월 초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영아원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시며 해맑은 웃음을 웃으시던 모습도 제 가슴에 남아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항상 크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안 될 것이 없다고 항상 강조하시는 서거석 총장님.

우리 학생들에게 희망으로 다가오신 최고의 멋쟁이 총장님을 저는 사랑합니다. ■



ChonBuk
University

